

21世紀를 指向하는 日本의 總合戰略 **

金振鎬 抄譯 *

1. 問題意識

本 調査研究의 背景에 있는 問題意識은 다음 네 가지 點에 있다.

가. 日本은 至今까지 한 國家로서의 基本構想을 가지지 않고서도, 國際環境이 比較的 有利하게 展開되었기 때문에 順調로운 發展을 期할 수가 있었지만, 今後에는 國際的 秩序의 構造的 變化의 過度期的 混亂이 豫想되며, 相當한 長期에 걸친 經濟成長의 鈍化가 豫想됨으로 이에 對한 國際環境의 對應이 極히 困難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나. 至今까지는 日本이 不明確하긴 했지만, 西歐에 catch-up 한다는 國家目標을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되지만, 現在 日本은 이미 이와 같은 目標을 어떤 意味에선 達成한 狀態에 있으며, 이제 새로운 國家目標과 그에 對한 基本構想을 가져야 할 必要性이 擡頭되고 있다.

다. 日本의 國際的 影響力擴大에 隨伴하여, 日本의 基本構想이 不明瞭하다는 事實이 國際關係에서 無用한 摩擦과 不信을 자아내고 있다.

라. 過去에 있어서 日本은 實利的이며, 自己中心的인 國益의 追求에 重點을 두고 왔지만, 今後에는 國際的 相互依存關係가 깊어지며, 또한 날로 좁아지고 複雜해지는 世界속에서 國際的 責任을 自覺하고 行動함으로써 國益을 追求해 나가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2. 國家目標

이와 같은 狀況에서 日本이 長期적으로 追求해야 할 國家目標은 보다 바람직한 生存方法

*MORS-K 幹事

**이 要約文은 日本의 總合研究開發機構(NIKA)의 Project의 一環으로 野村總合研究所가 施行한 調査研究를 要約 번역한 것임

獨立, 安全 그리고 國際的 責任의 自覺에 의한 自己實現이라고 表現하는 것이 適切하다고 생각된다.

3. 國際政治와 國際經濟의 環境

가. 國際政治 環境

長期的인 日本의 基本構想을 생각할 境遇, 먼저 國際環境의 將來에 대해선 可能한 限의 正確한 透視가 必要하다. 國際政治에 있어선 今後 10年 또는 25年 앞을 展望한다 해도, 基本的인 變化가 豫想되지 않는 要因으로서 다음의 다섯가지를 들 수가 있을 것이다.

(1) 國際關係에서의 相互依存性的의 擴大, 世界的 規模에서 處理되지 않으면 안될 國際問題의 增加의 傾向에도 不拘하고 國家는 國際關係에서의 繼續적인 主役이 될 것이며, 安全保障의 問題는 國際的 主要關心事로서 繼續될 것이다.

(2) 勢力均衡의 Approach 만으로는 國際, 安全保障은 確保될 수 없겠지만 그것을 無視하고 安全保障을 確保할 수 있는 狀況은 容易하게 實現되지 않을 것이다.

(3) 美·蘇만이 事實上的의 超大國이며, 美蘇의 힘의 均衡은 基本的으로 維持되어 갈 것이다.

(4) 軍事力은 國際情勢에 큰 影響力을 繼續 부여할 것이나 國際情勢에 依해 큰 影響力을 주는 軍事力 以外的 要素가 增大해 나갈 것이다.

(5) 國際的 政治·經濟 System은 細分되어, 두 超大國의 國際情勢를 積極적으로 Control 하는 힘은 相對的으로 低下될 것이다.

將來的國際環境에 變化와 困難을 부여하는 基本的 要素는 다음의 다섯가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1) 國際關係에 있어서의 相互依存度의 增大, 國際關係에 있어서의 世界化의 傾向, 에너지問題 및 南北問題¹⁾ 등이今後 10年~20年 앞을 내다볼 境遇, 國際情勢에 가장 重要的 影響을 미치는 要因이 될 것이다.

(2) 에너지問題를 中心으로 하는 資源 및 環境의 有限性에 對應하는 問題와, 南北對立의 問題等에 效果적으로 對應하는 새로운 統合된 國際 System의 再整備는 21世紀로 넘겨지는 課題가 될지도 모른다.

(3)今後 10年~15年間に 各國의 勢力의 方向이 20世紀末에서 21世紀初에 걸쳐진 새로운 國際 System形成의 열쇠가 될 것이다.

(4) 東西關係에 있어서의 對立과 共存의 Pattern은 將來的 安全保障問題를 規定하는 主要課題로서 남을 것이나 10年~25年 앞을 생각하면 將來的 紛爭은 第三世界 内部, 또는 南北사이의 것으로 될 可能性이 強하다. 아니면 그것에 東西關係가 서로 엇갈리는 境遇가 될 것이다.

(5) 核에너지의 平和的 利用과 核의 擴散防止를 兩立시키는 方法의 發見은, 남겨진 今世紀末의 國際政治·經濟에 걸쳐지는 最大의 課題가 될 것이다.

將來的 國際政治 環境을 規定하는 重要的 要素 및 要因은 다음과 같은 것이 될 것이다.

(1) 將來的 國際政治 環境을 規定하는 가장 重要的 要因은 美·蘇關係 알 것이다. 美蘇의 勢力均衡은 軍備制限交渉과 軍備競爭의 共存속에서, 基本的으로 維持 될 것이다. 東西의 緊張緩和는 相互의 國家利益과 이데오르기의 對立 또는 影響력의 競爭속에서 將來에도 繼續될 것이며, 美國은 中國(共)으로 부터의 威脅은 將來에 걸쳐 거의 없을 것이라는 認識下에 亞細亞大陸周邊의 地上軍을 撤收하여 所謂 아일랜드체 인戰略²⁾으로 復歸할 것이다.

(2) 美·中은 이데오르기의 差異와 臺灣問

題를 除外하면 對立의 要因은 적다. 美·中間에는今後 比較的 長期에 걸쳐서 蘇聯의 威脅에 對處한다는 共通의 課題를 둘러싸고 協力하는 可能性이 存在하지만, 美·中接近은 美蘇의 緊張緩和를 보다 協力的인 것으로 發展시키고자 하는 美國의 考慮와 臺灣問題로 因하여 그 限界가 주어질 것이다.

(3) 中·蘇의 對立關係는 小規模 國際紛爭의 反復, 아니면 國家關係의 部分改善을 隨伴하면서今後 10年間に 걸쳐 基本的으로 繼續될 것이다.

(4) 美·日關係에선 安全保障과 經濟分野에 있어서 極히 뿌리가 強한 共通의 利益이 있지만 美·日간의 同盟과 協力關係를 보다 成熟한 것으로 하기 爲해선 對等性和 相互性의 特徵을 導入할 必要性이 增大되며 美·日關係의 變化와 調整은今後에도 繼續될 것이다. 美日の 經濟關係에 있어서는 日本의 輸出이 美國의 市場과 雇用に 끼치는 影響을 둘러싸고 緊張과 對立을 되풀이 할 것이다. 그것이 決定的인 對立의 要因이 될 可能性은 적으나, 調整은 可能할 것이다. 軍事的인 安全保障의 能力과 責任에 있어서 美·日間に 存在하는 「不均衡」을 둘러싸고, 將來 美·日간의 政治調整이 보다 深刻한 問題가 될 可能性이 있다.

(5) 日·蘇 兩國間에는 오랜 對立의 歷史가 있다. 서로 相對國에 對한 強한 不信感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日本은 蘇聯과 中國의 雙方에 對해서 ダイナミック한 均衡을 維持하면서, 蘇聯과의 對立보다는 友好關係를 增大해 나가는 것에 長期的인 利益을 찾아 볼 수 있는 立場에 있다. 모름지기今後 10年간의 日·蘇關係를 規定하는 問題의 核心은 北方領土問題와 시베리아開發問題이다. 내다볼 수 있는 限의 將來에 있어서, 飛躍的으로 經濟協力關係를 緊密化하는 일도 없겠지만, 어떤 限度를 넘어서 日·蘇의 對立關係가 深刻해 지는 일도 없을 것이다.

(6) 日·中關係는 相異한 體制와 이데오르기問題, 그리고 尖閣列島の 問題를 빼고서는 現

在 利害關係가 크게 對立될 要素는 적다. 오히려 貿易의 發展이라든가, 石油, 石炭等の 増産과 輸入을 確保한다는 面에서도, 日・中間은 經濟的으로 共通의 利益을 追求할 수 있는 餘地가 클 것이다.

(7) 亞細亞 太平洋地域은 美・蘇・中・日의 四個國의 影響力의 均衡에 依해 規定되며, 어느 나라도 壓到的인 影響力을 行使할 수 없을때, 이 地域의 政治的 安全이 保障된다. 今後 10年間에 이 影響力의 均衡이 基本的으로 무너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東北아시아에 있어서 最大의 課題는 韓半島이며, 이 地域에 長期的인 不安全한 情勢가 豫想되지만, 1981~2年에 豫想되는 美地上軍 撤收後에도 北쪽의 武力侵入에 依한 南北統一의 可能性은 極히 적다.

東南아시아에 있어선, 베트남戰爭後 大國의 積極的인 影響力이 弱해졌다. 이로 因해 AS-EAN 諸國과 인도차이나社會主義三國 사이에 不安全한 힘의 均衡이 維持되고 있다. 今後 10年~15年의 將來에 걸쳐 베트남을 中心으로 하는 인도차이나三國은 政治統一과 經濟復興에 專念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나라와 ASEAN 諸國과의 平和共存은 基本的으로 維持될 可能性이 強하다. 그러나 ASEAN의 對應如何에선, 인도차이나三國에 依한 東南아시아 統一의 움직임이 없다고도 할 수는 없다. 그것은 主로 ASEAN 諸國이 그 國內의 強靱性, 彈力性을 強化시킬 수 있는가 없는가에 달린 것이다.

이스라엘과 그 隣近 아랍諸國의 紛爭은 一面에서 段階的 解決보다는 包括的 解決로의 움직임이 보이고 있지만, 설사 包括的 解決에서 合意에 到達한다 해도 그 段階的 具體化의 過程에서 無數한 困難이 豫想된다. 이 地域의 紛爭은 現時點에서 가장 危險한 國際紛爭이며 今後에도 衝突發生의 危險이 間斷없이 發生되어 나갈 것이다.

나. 國際經濟環境

21世紀를 向해서 國際經濟環境을 展望해 보면 그 特徵은 다음의 다섯가지로 集約될 것이다.

- (1) 世界經濟의 長期停滯
- (2) 先進國, 發展途上國에 있어서의 經濟의 二極化現象
- (3) 地域經濟化 傾向의 增大
- (4) 相互依存性의 增大
- (5) 인플레이와 雇用과의 TRADE-OFF 關係의 崩壞

則 現在の 世界經濟는 混迷와 變革속에 있으며, 새로운 리더쉽의 形成에 依해, 世界經濟가 長期波動的 上昇局面을 맞이하기까지는 20年前後의 長期的인 努力이 必要할 것이다. 그 過程에서 國際通貨體制는 如前히 달라 中心으로 維持될 것이지만, 部分的으로 SDR³⁾이 公的 決濟 및 準備資産을 말을 可能性이 있다. 貿易面에서는 「管理된 自由貿易」으로의 傾向이 進陟되어, 周邊國家와의 貿易關係의 緊密化를 통해서 地域經濟化의 傾向을 強化시켜 나갈 것이다.

새로운 國際經濟秩序의 內容도 南北問題에 대한 對應方法에서 定해지게 되지만 그것은 雙方이 對立點만을 強調하지 않고, 서로 步調를 같이 함으로써 前進의 一步를 내딛는 것이 될 것이다. 具體的으로는 產油國과 工業化가 進展된 非產油發展途上國의 經濟開發을 더욱 進展시켜 成長先進國과 더불어 다음의 國際經濟秩序의 基盤形成을 進陟시키는 것으로 될 것이다.

東西의 經濟關係는 貿易 또는 特定 Project에 對해 相互關係가 더욱 깊어 지겠지만 兩側의 社會體制의 相違에서 相互依存關係의 進展에는 限界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다음의 새로운 國際經濟秩序가 美國을 中心으로 形成된대 해도, 그것이 蘇聯의 對外政策에 依해서 影響을 받는다는 것은 免치 못할 것이다. 蘇聯의 經濟成長이 美國의 그것보다 若干 높은 水準에서 推移된다는 見解도 있기는 하지만, 蘇聯의 經濟도 많은 制約要因을 안고 있어 2000

년까지의 과정에서 美·蘇의 經濟隔差가 現在 以上으로 크게 줄어들 가능성은 적다고 보아도 좋을 것이다.

中國經濟는 1985년까지는 約 5%, 그以後 2,000년까지는 約 6%의 成長이 豫想된다. 그 結果 1985년에는 中國의 國民總生産은 日本의 그것의 70% 未洽이며, 2000년에는 90%의 水準에 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中國經濟의 Autarky의 性格⁴⁾이 基本的으로 維持된다면, 그의 對外的 影響力은 限定되기 때문에, 日本 또는 기타 아시아諸國과의 經濟的 Freecushion이 顯著하게 增大된다고는 생각되지 않는다.

世界經濟가 地域化의 傾向이 짙어지는 속에서 아시아 太平洋地域經濟의 形成도 進展되며, 그 規模도 相當히 擴大될 것이다. 日本, 東아시아(韓國, 北朝鮮, 臺灣, 香港), ASEAN, 베트남, 大洋州의 GNP 總額은 1973년의 5,600億\$에서, 1985년에는 約 1億\$, 2000년에는 約 2兆\$(1973年單位)이 될 것이다. 美國의 GNP는 2000년에 가서 約 3.4兆\$에 達하지만, 이 時點에서 美國과 아시아 太平洋 및 캐나다, 中南美의 經濟規模는 거의 均衡이 維持되며, 美國의 經濟活動의 基盤은 太平洋에 依해 轉換될 것이다.

世界經濟 展望속에서 에너지에 대한 豫見은 重要的인 것이다. OECD諸國이 4% 程度의 經濟成長을 持續하기 爲해선 大規模의인 에너지節約이 實行되지 않는 限, 世界石油 需要는 1980年初期에 그 供給能力에 接近되며, 1985년까지는 그 供給能力이 大幅超過하여 石油價格은 높히 될 가능성이 있다. 가까운 將來에 蘇聯은 石油輸出國에서 輸入國으로 轉換될 것이다. 1980年頃부터 아라스카의 石油生産은 別變動이 없게 되며, 北海의 石油生産의 增加도 鈍化될 것이다. 이 結果 OPEC의 石油에 대한 需要는 增大되지만, 가장 餘裕가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 充分한 増産의 Incentive을 줄 수 없는 것으로 豫想되기 때문에, 1983年以後 사우디의 石油供給은 需要의 增加에 뒤따라갈 姿勢를 拋棄할 것이다.

4. 國內의 主體의 條件

다음으로 日本의 主體의 條件에 있어서의 制約條件을 생각해 볼 必要가 있다. 먼저 日本의 政策決定能力이 問題이다. 日本의 政治는 多黨化의 時代로 접어들기 시작했으며 自民黨의 小數單獨政權, 또는 保守와 現實의인 革新과의 聯立政權이 出現할 可能性도 있다. 自民黨을 下野시킬 野黨聯合政權이 成立할 可能性은 적다고 생각되지만, 우리나라에서 西歐에 있는 것과 같은 政策上에서 近似한 複數政黨이 最少限의 過半數政權을 만드는 것과 같은 事態가 發生한다든가, 또는 成立된다 해도 安定的인 機能이 發揮될런지는 아직 未知數이다. 그러나 政治에 있어서 意思決定이 顯著하게 困難해지는 事態는 어느程度 避할 수 있다고 생각해도 좋다.

制約條件의 第二는 財政危機이 深刻化이다. 大藏省은 均衡財政에의 指向을 가리키고 있지만 現實問題로서는 國債의 大量發行이 不可避하며, 國債依存度는 30~40%, 國債費에서 稅收가 차지하는 比率은 20~30%의 危機라인의 어느 水準을 死守할 것인가는 家計에 依한 高貯蓄率과 政治의 自制力에 依해서 最終적으로 決定되어질 것이다. 一面, 日本의 主體의 條件에 依한 資産으로서인 日本의 強한 經濟的 潛在力을 窺을 수 있다. 今後 日本의 經濟成長은 過去에 比하면 相對적으로 底下된다고 하지만, 過去의 高度成長을 뒷받침하고 있던 傳統的要因은 今後에도 有效하게 繼續될 것으로 생각되며, 高度成長下에서 蓄積된 各種經濟力이 새로운 成長要因으로서 添加됨으로, 日本의 經濟Dynamism은 지금부터는 基本的으로 維持되어 갈 것이다.

5. 基本構想

以上과 같은 國際環境의 展望과 主體의 條件下에, 日本의 國家目標達成을 指向하여, 日本

의 基本構想, 即將來에 일어날 수 있는 여러 가지 狀況下에 如何한 行動을 取할 것인가의 指針을 展開한다. 여기서는 日本의 基本構想을 機能的 Approach 와 地域的 Approach 에 依해서 展開한다.

가. 機能的 Approach 에 依한 基本構想的 展開

機能的 Approach 에 依한 基本構想을 展開할 境遇, 그 基本이 되는 上位概念으로서, 다음 다섯가지를 들어, 分野別 戰略을 展開한다.

① 今後 21世紀에 걸쳐 豫想되는 國際水準의 過度期의 混亂에 對한 對應

② 相互依存도가 높아지는 世界, 좁아진 世界에서 生存하기 爲한 國際協力

③ 새로운 Frontier 의 創造, 새로운 國際 System과 새로운 리더쉽 形成에의 寄與

④ 日本의 孤立化와 日本에 對한 不信, 反感을 解消하기 爲한 對策

⑤ 日本의 自己主張을 效果的으로 遂行하기 爲한 協商能力의 強化對策

(1) 機能的 Approach 로서는 優先 第一次로 1980年代 前半부터 顯在化한다고 생각되는 世界的인 에너지供給力の 限界 및 그것에 隨伴해서 國際적으로 急速히 普及될 것으로 생각되는 原子力 利用에 對應해서, 에너지戰略과 原子力 開發戰略을 생각하지 않으면 안된다.

(가) 石油에 있어서는

㉠ 1973年에서 1985년까지의 平均成長率을 5%, 그 以後 2000년까지를 4%로 해서 그 成長達成에 必要한 에너지供給量確保에 努力한다.

㉡ 日本의 石油輸入量의 世界石油生産量에 對한 Share 의 上限을 8%로 하고, 石油輸入 可能量의 上限을 1985年에 4億ℓ로 하고, 그 以後의 輸入量은 그 上限線을 넘지 않도록 努力한다.

㉢ 上記한 石油輸入量으로 그 成長率을 達成하기 爲해 에너지節約의 國內政策을 強化한다.

- 에너지消費의 節約
- 에너지使用效率의 向上
- 産業構造 또는 生活環境의 轉換에 따른 省에너지화⁵⁾

以上の 세가지를 重點으로 促進시켜 나간다. 그렇게 함으로써 에너지消費의 對 GNP彈性值을 1985年에는 0.7% 前後로, 2000年에는 0.5% 前後로 抑制하기 爲해 努力한다.

㉣ 其他 에너지供給源의 多元化

㉤ 石油의 四個月分의 備蓄

㉥ 아시아地域에서 全輸入量의 3割을 確保한다.

등의 對策이 必要할 것이다.

(나) 原子力發電에 對해선

㉦ 1985年의 目標을 2,500萬KW, 2000年에는 1億KW로 한다. 그 以後의 急激한 展開를 可能케하는 諸準備, 特히 研究開發과 産業基盤의 整備에 重點을 둔다.

㉧ 原子力發展에 關한 戰略은 環境, 安全性, 核擴散防止, 原子力産業등의 諸問題를 整備하고 策定되지 않으면 안된다.

㉨ 原子力開發은 核擴散防止, 核燃料資源, 原子力프란트輸出등의 國際的諸問題와 關聯되기 때문에 各國의 利害關係의 對立이 表面化하는 念慮가 多分히 있고, 日本으로선 原子力利用에 關한 國際的 協力路線을 確立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것은 美國과의 緊密한 協調體制를 軸으로 하여, 아시아 太平洋地域을 中心으로 하는 多國間協調體制를 推進해야 할 것이다.

㉩ 核의 擴散防止에는 國際原子力機關(IAEA)과 같은 國際管理 協力, 其他 技術的措置에 依한 擴散防止에 協力하는 外에, 政治規制에 依한 擴散防止에도 重點을 주어야 한다.

(2) 機能的 Approach 의 第二는 技術開發戰略과 産業構造轉換戰略인 것이다.

(가) 技術開發戰略의 基本은

㉪ 今後 10年間에 政府의 研究開發投資를 增倍(實質)하는 것을 目標로 하는 것이다.

㉫ 또한 民間企業의 研究開發投資도 經

濟成長率 以上으로 增加시켜, 나라 全體의 研究開發投資의 對國民所得 比率을 現在의 歐美程度를 若干 넘는 水準인 約 3%로 가져간다.

(나) 産業構造轉換戰略의 基本은

㉞ 將來 豫想되는 에너지供給量의 增加限界에 對해서 國內産業의 省에너지化를 徹底하게 推進한다는 것이다.

㉟ 다음에는 資源輸入型의 體質에서 素材輸入型의 體質로 轉換이 必要하다.

㊱ 國際의 水準의 産業構造轉換에 適應하기 爲해 勞動集約産業의 開途國移轉을 促進해야 할 것이다.

㊲ 新規의 戰略의 輸出商品을 生産할 수 있는 産業의 發展을 推進해야 할 것이다.

(3) 機能의 Approach 의 第三은 安全保障과 危機管理에 關한 것이다. 여기서는 狹義의 安全保障 卽, 防衛問題와 廣義 및 狹義의 安全保障에 關한 危機管理 體制의 問題이다.

(가) 日本의 狹義의 安全保障에 있어서 보 다 重要한 基本的인 課題는

㉞ 防衛問題에 대한 國民的 合意의 形成이다. 卽 防衛問題에 對한 國民的 關心과, 理解와 支持를 높히는 것이다. 그러기 爲해선 自衛隊의 役割 및 機能을 明確하게 하지 않으면 안된다. 거기에는 (i) 事前 準備하는 限度에서 힘의 均衡을 통한 國際平和 維持에 貢獻하는 機能. (ii) 自衛를 爲한 低抗力, (iii) 國益에 대한 被害를 制限하고 救濟하기 爲한 能力等이 列擧될 수 있다.

㉟ 日本의 防衛는 自衛隊+美·日安保條約 以外의 代替案은 그 現實性을 가지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우선 美·日安保條約에 對한 超黨派의 合意의 形成에 努力해야 할 것이다.

㊱ 다음으로 美·日의 緊密한 協力關係를 繼續 維持해 나갈 努力이 必要한 것이며, 그것은 美·日間의 防衛能力과 責任에 關한 非對稱性에서 오는 不滿과, 美國의 防衛公約의 信賴性에 對한 不安을 改善하기 爲한 努力인 것이다. 그것에는 單純히 自衛의 範圍에 對한 防

衛努力의 強化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國際平和의 維持와 아시아 太平洋地域의 安全保障에 對한 經濟的, 政治的, 貢獻이 包含되지 않으면 안된다. 日本은 基本的으로는 아시아 太平洋地域에서의 힘의 均衡을 높은 水準에서 維持하느니 보다는, 可能한 限 낮은 水準으로 維持하는 데서 그 利益을 찾아 내야할 것이다.

(나) 惹起될 수 있는 國家의 危機에 對해 完全한 安全保障을 期待할 수 없다면 危機事態의 可能性에 對處하기 爲해서 危機管理體制를 確立해 두는 것이 重要한 課題일 것이다. 同時에 그것을 Back-up 하기 위해서도 早期警報體系의 確立이 必要하게 된다.

(4) 21世紀에 指向시킨 日本의 基本構想을 생각할 경우 南北問題에 대한 對應은 重要한 課題의 하나이다.

(가) 南北問題를 Global 하게 解決할 수 있는 國際System의 構築이 20世紀 於間에서 期待할 수 없다면 그것으로 指向되는 Subsystem으로 閉鎖의 이 아닌 廣域協力圈의 太平洋 Community 의 形成에 努力해야 할 것이다.

(나) 太平洋 Community 에 對한 重要한 Staff 으로서, 太平洋 Community-研究開發 Center 를 設立하고, 一次產品 市場開拓技術等 地域에 密着한 技術의 開發과, 管理技術의 研修等에 協力해야 할 것이다.

(다) 日本은 모름지기 急速하게 政府開發援助(ODA)의 質과 量을 先進國平均으로 끌어 올린다는 것이, 國際信任을 얻기 爲해서도 絶對 必要한 것이며 開途國 援助에 對한 豫算을 一般豫算 System에서 開放하여 「援助豫算制度」로서 長期 System 으로 構築해야 할 것이다.

(5) 機能의 Approach 에 依한 基本構想의 展開로서, 日本은 繼續해서 美國과 緊密한 協力關係를 維持함으로써 幅 넓은 共通의 利益을 追求할 수 있으며, 美國의 世界的 秩序創造 努力과 리더쉽에 協力함으로써 世界平和에 協力하는 것이 될 것이다. 美·日關係의 緊密化를 爲해 日本이 重點을 두어야할 點은 다음의 세 가지 點이다.

(가) 美·日·歐 三者關係라고 하는 多角的인 國際協力の 테두리속에서 美·日關係의 緊密化를 꾀한다.

(나) 美·日關係를 보다 成熟한 同盟과 協力關係로 發展시키기 爲해선 美·日關係의 對等性和 相互性의 特徵을 導入하도록 努力한다. 美·日의 防衛關係에 있어서의 不均衡을 改善하기 爲해선, 日本은 適當한 費用을 他分野에서 支拂할 用意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다) 核時代, 相互依存의 世界에서, 國家의 安全과 獨立을 單獨으로 追求한다는 것은 不可能하다. 이와 같은 世界에서 日本은 自己主張을 效果的으로 相對方에게 說明하는 交渉力을 強하게 하는 努力이 必要하다. 同時에 國家의 獨立이란 概念에 對해서도 國民의 意識의 轉換이 必要하게 될 것이다.

나. 地域的 Approach 에 依한 基本構想의 展開

地域的 Approach 에 依한 基本構想에는 다음의 세가지를 그 基本原則으로 해야 할 것이다. 第一은 日本의 安全과 安定을 말기기에 足한 地域 集團으로서, 美·日·歐의 三者關係, 或은 OECD, 集團을 考慮해야 할 것이다. 그 中心에 美國과의 政治, 經濟, 軍事, 文化, 技術 等の 緊密한 協力關係라고 하는 核을 設定한다. 第二는 日本의 將來의 發展을 말기기에 足한 地域 集團으로서 아시아 太平洋地域을 든다. 第三은 危機에 말려들 것을 回避하기 爲해서 軍事介入은 勿論, 政治的, 經濟的으로도 보다 限定된, 보다 慎重한 關係를 가져야할 地域으로서 아시아大陸 및 그 周邊을 생각한다.

日本은 中期的으로는 그 活動分野를 美·日·歐 三者關係, 或은 OECD 集團속에서 求해 나간다 해도 어느程度 長期的으로는 그것들과 調和하는 姿勢에서 아시아 太平洋地域으로 發展의 高장을 求해서 閉鎖的인 아닌 廣域的 開發協力圈이라고 할 수 있는 太平洋 Community를 指向해야 할 것이다.

이같은 構想의 問題點은 우선 美國이 이에

대해 어느程度의 關心을 나타내는가 하는 點이다. 美國의 關心이 制限되면 이 地域의 安全保障의 基礎가 弱化되며, 經濟活動의 充分한 展開에 疑問이 생긴다. 또하나의 問題는 1980年代의 後半에 있어서 蘇聯과 中國이 그 經濟活動의 Frontier를 이 地域으로 求하기 始作할 것에 對備하여, 그때까지 받아들여지는 側에서 Community의 基礎를 確立하여 어느程度의 Rule를 確立해 두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美·日·歐 三者關係, 或은 OECD 集團+ 아시아 太平洋地域만으로는 日本의 Achilles踵인 에너지問題는 解決되지 않으며 南北問題에 對해서도 充分하게 對應하는 것은 못된다. 그래서 여기에 中東產油國 或은 아프리카에 對해선 如何히 對處해 나갈 것인가 하는 問題가 남게 되는 것이다.

既히 石油의 確保는 重要한 問題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日本이 美·蘇와 競合해서 中東의 石油을 보다 有利하게 確保할 수 있는 效果的인 對策을 생각한다는 것은 極히 困難한 것이다. 日本으로서는 太平洋 沿岸地域만으로 눈을 빼앗기지 말고 페루沙灣, 印度洋 沿岸地域에 對해서도 重大한 關心을 繼續 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註 1) 1960年代에 들어서부터 쓰기 시작한 용어로서 舊植民地의 獨立에 依해 생기는 새로운 問題狀況을 뜻하는 말로 使用된다. 低開發諸國과 先進資本主義世界間の 經濟隔差에서 생기는 問題狀況

註 2) 島嶼를 連絡시켜 構想하는 戰略

註 3) SDR : Special Drawing Rights (特別引出權)의 略語로서 IMF 加盟國이 國際收支가 惡化되었을때 無擔保로 외화를 引出할 수 있는 權利

註 4) 自立經濟의 性格(自給自足)

註 5) 에너지政策에 包含된 事項을 漸次的으로 縮少檢討해 나가는 計劃